



# 10 लाप हा निर्म हो में से









소송 들어가면 보복성 기사를 시리즈로 쓸텐데 걱정이군요.

누워서 침뱉기지. 요즘 그런 의도적 왜곡기사와 가짜뉴스(fake news)에 넘어가는 독자는 없어. 자! 원칙대로 대응하자구! 그간의 사례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꼼꼼히 준비하라구.









지난번 생산공장 위생 상태에 대한 허위보도는 기사를 내리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경영 실적 왜곡보도는 법적 대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보도나 광고 요구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 주세요.















신용도 하락으로 주가는 물론 판매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참에 나쁜 언론에 대한 대응 선례도 남길겸 형사소송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정정보도 청구: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반론보도 청구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손해배상 청구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급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

형사소송을 하려면 \*공갈이나 \*공갈미수죄가 성립돼야 합니다. 혹시 이메일이나 카톡 대화내용, 녹취자료 등 증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악성 기사 삭제를 빌미로 광고청탁을 강요하고, 그래서 미래가 광고를 한 이후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결국 협박을 당해도 광고는 주고, 대신 관련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말이군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언론사와의 문제 발생시 대화내용을 녹취한다는 대응 메뉴얼을 지켜왔어요.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미래이며, 피신청인은 M신문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악의적 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방금 조사관이 사건 경위를 말씀했는데요. 박국장님께서 반론하시죠.

이번 사건은 본지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해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으며, 미래 측이 피해자라 우기는 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탄압입니다.



익명을 앞세워 일방적 주장만 기사화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

\*공갈미수죄: 공갈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신청인 측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싶으나 중재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재위에서는 원만한 중재를 하려 했으나 이견이 있는 만큼 조정불성립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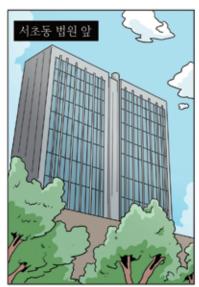














손해배상액이 예상보다 쎄게 나왔어요. 정정보도도 받아냈고 승소했으니 형사소송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기업에 대한 피해 사례 중언이 있어 형사소송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매체 과잉으로 언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시작 후 6개월 뒤...

## M신문 폐간 위기, 편집국장 박씨 경질



M신문이 폐간 위기에 처했다. 편집국장 박씨는 도의적 책임을 면치 못하고 결국 퇴임했다. M신문은 지난주 매각에 나섰지만 매수하겠다는 곳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B

